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2:10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5월 10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유의 주재 / 찬송가 32(신) 48(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30번(시편 67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어머니의 넓은 사랑 / 찬송가 579(신) 304(구)

기도 / 박주혜

성경 봉독 / 히브리서 12장 9-10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사랑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 찬송가 347(신) 38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3,4절 / 찬송가 183(신) 17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훈계하고 바로잡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에는 인간의 제한과 부모 자신의 원함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이며, 자녀는 그 사랑을 존중해야 합니다.
2.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부모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욱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다루십니다.
3. 그 유익이란 단지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큰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 설교 요약

우리도
산 돌이
되어야 합니다

벧전 2:1-5

1.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너무 거룩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 아닐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만 산 돌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산 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요구 이전에 먼저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살아 있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 신앙은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익숙함에 머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일 깨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안의 시기와 가식,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영적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점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세상에 길 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담아내는 존재로 자라갑니다.

3.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처럼 보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귀한 모퉁잇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위에 함께 세워져 갑니다. 때로는 내 고집이 꺾이고 서로를 품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4. 결국 산 돌의 삶이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와 그 백성은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아 있는 산 돌로 기쁨 가운데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18장 공부합니다).
5.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의 삶에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하길 축복드립니다.
6. 오늘 친교를 위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각 전도회 모임이 5월 31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
8. 윤수찬(선옥)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5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조은영			
기 도	최명희(3)	박주혜(10)	최상천(17)	조은영(24)	박래석(31)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익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삶이 편안해지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유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유익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에 큰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 인정, 안정, 자기 만족을 더 실제적인 유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은 쉽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의 전이가 없다면, 올바른 감사의 신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만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 Love Does Not Leave Us Alone -

